

개인주의가 유가사회에 대한 윤리적 충격

— 대만사회를 중심으로 —

린 화 왕 (林 火 旺)*

【주제분류】 윤리학, 유학

【주요어】 대만사회, 개인주의, 집단주의, 유가 사회, 윤리적 충격

【요약문】 1988년 계엄령 해제 이전, 유학은 대만 사회에서 주류 이데올로기였다. 중화민국(대만) 헌법이 전적으로 시행된 이래, 유학은 도전을 받아 왔고 그 전반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었다. 현재 대만에서 실행되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위에 세워졌고,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주의이다. 그와 반대로 유학은 집단주의이다. 따라서 유가 윤리에 가한 개인주의의 충격은 뚜렷하고 또 포괄적이다. 이 글은 대만을 하나의 온전한 사례로 삼아, 개인주의 윤리가 특정한 자유주의 사회의 도덕과 유가 윤리 사이의 충돌을 분석하고자 한다.

I. 서론

1966년에 중국 대륙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를 혁명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유가문화 및 윤리도덕은 타도되어야 할 첫째가는 적이 되었다. 이듬해에 대만에서는 즉시 “중화문화 부흥운동 추진위원회(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가 설립되었고 중화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가사상의 교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

* 대만대학 철학과 교수(台大哲學系教授)

다. 당시 양안의 정치적인 대립이 문화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음이 분명한데 장중정(蔣中正) 총통의 지도하에 대만정부는 문화부흥운동의 추진에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중국인 사회에서 대만은 절대적으로 중화문화를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지켜낸 곳으로 되었다.

“중화문화부흥운동추진위원회”의 초대회장이 바로 장개석 총통이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중화문화를 추진시켰는데 고전을 다시 정리·출판하고 유가의 경전을 재해석하는 일 외에 더욱 중요하게는 초·중등 교육에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시험, 공무원들의 공직시험에서 유가학설이 국문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다. 대만은 1968년에 국민의무교육을 기존의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였고 교육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유가사상의 영향 하에서 성장함으로써 유가의 윤리도덕관은 민심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장개석 통치 시기의 대만이 전형적인 유가사회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이 1988년에 계엄을 해제한 이후부터 정치제도는 헌법으로 복귀되었다. 중화민국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이기 때문에 계엄의 해제가 대만 사회에 가한 충격은 전면적인 것이었다. 여러 단체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고조하였으며 유가사회의 윤리관은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 하면 유가사상은 집단주의(collectivism)이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헌정체제가 점차적으로 실행되면서 기존의 확고한 유가 윤리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II. 개인주의

유가가 집단주의라고 하는 주장에 유가의 학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대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위잉스[余英時] 선생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초기적 교의(教義)로 말하면 유기는 중간

을 택하여 거기에 자리잡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집단과 개인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말하면 유가는 극단적인 집단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배척한다. 맹자의 ‘양·목의 학설과 거리를 둔다[距楊墨]’는 말이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면 유가는 비록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집단의 질서를 중시하지만 결코 인간의 개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맹자는 ‘만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만물의 실정’이라 하였고 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은 그 얼굴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대(漢代) 이후 유가는 대체로 여전히 이러한 ‘중용의 도’를 답습하였다.”¹⁾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서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검토될 만하다. (1) 원시 유가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하여 확실히 “중용의 도”를 내세웠는가? (2)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동중서(董仲舒)가 제자백가를 배척하고 오직 유학만을 존중하자고 하였는데 법제화한 이후의 유가에 나타난 양상도 마찬가지 아닌가?

원시 유가가 개인의 심성수양을 중시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맹자는 더더욱 인심의 부동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유가가 개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가? 관건은 “개인주의”란 무엇인가에 있다. 엄복(嚴復) 선생은 영국의 철학자 밀의 명저 *On Liberty*를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으로 번역하였다. 만약 이 책의 주장대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별하면 유가사상을 주로 하는 중국 사회에는 “개체”의 개념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집단주의의 사회였고 집단의 이익이 개인 우위에 있다.²⁾

밀은 유명한 자유자의자이다. 자유주의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이

-
- 1) 余英時, 『현대유학론』(River Edge, USA: 팔방문화기업공사, 1996), 166쪽. “以原始的的教義而言, 儒家可以說是擇中而處, 即居於集體與個體的兩極之間. 從消極方面說, 儒家既反對極端的集體主義, 也排斥極端的個體主義. 孟子‘距楊墨’便清楚地表現了這一立場. 從積極方面說, 儒家雖自孔子始即重視群體秩序, 但并不抹殺人的個性. 如孟子說: ‘物之不齊, 物之情也.’ 又說: ‘人心不同, 各如其面.’ 漢以後儒家大體上仍沿襲此一‘中庸之道.’”
 - 2) 비록 유가의 윤리질서는 “추기급인”을 강조하지만 이는 다만 자신에 대한 수신을 원점으로 하고 친소원근에 근거하여 그려낸 하나의 동심원이다. 費孝通 선생은 “差序格局”라고 부르고(『향토중국』, 홍콩삼련서점, 1991을 참조) 논자는 자아중심적(self-centered)이라 부르는데 이는 결코 개인주의는 아니다.

있고 버전들 사이에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만 있기 때문에 핵심 혹은 본질로 간주할 수 있는 명제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³⁾ 하지만 우리는 자유주의가 중요시하고 받아들이는 가치들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빗 존슨(David Johnson) 교수의 주장에 근거하면 자유주의가 받아들이는 가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⁴⁾

1. 개체만이 고려된다. (Only individuals count)

정치와 사회제도를 평가할 때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유일한 정보는 바로 개인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군사력 확장여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개선여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군사력의 확장으로 개인의 안전 혹은 생활이 개선된다면 자유주의는 군사력의 증강을 지지하고 반대로 군사력의 확장이 개인의 생활을 해치게 된다면 자유주의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증강을 실현해내는 능력 자체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개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약 단지 하나의 군사강국이 되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을 증가한다면 자유주의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2. 각 사람이 평등하게 고려된다. (Everybody counts as one, nobody as more than one)

자유주의의 정치이론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다. 자유와 평등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자유주의 이론의 해석은 같지 않지만 모든 자유

3) 이러한 논의는 Jeremy Waldron의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Liberalism” in *The Philosophical Quarterly*(37: 127, 1987)를 참조.

4) David Johnston, *The Idea of a Liber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8~23쪽.

주의 이론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라 가정한다.

3. 각 사람은 모두 하나의 주체로 간주된다. (Everybody to count as an agent)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자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자유”란 우리가 하나의 주체(agent)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주체”는 하나의 존재자가 가치와 계획을 품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단지 지각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행위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이 다른 사람도 하나의 주체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자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기획할 수 있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자유주의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확립은 반드시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최종적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 “사회”, “단체”, “가정” 등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구성할 수 없다.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국가 혹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타인을 존중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매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생활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밀 자신의 논의에는 개인주의의 정신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의 『균기권계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의 훌륭한 논의가 있다.

“That the only purpose for which power can be rightfully exercised over any member of a civilized community, against his will, is to prevent harm to others. His own good, either physical or moral, is not a sufficient warrant. He cannot rightfully be compelled to do or forbear because it will be better for him to do so, because it will make him happier, because, in the opinions of others, to do so would be wise or even right. These are good reasons for remonstrating with him, or reasoning with him, or

persuading him, or entreating him, but not for compelling him or visiting him with any evil in case he do otherwise.... In the part which merely concerns himself, his independence is, of right, absolute. Over himself, over his own body and mind, the individual is sovereign.”⁵⁾

이 한 단락의 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 (1) 개인의 행위가 타인을 해칠 수 있을 때라야만 정부 혹은 사회는 법률 혹은 여론의 방식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자유원칙 혹은 상해원칙(harm principle)이라고 부른다. (2) 신체상이든지 도덕상이든지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의지에 대한 간섭을 증명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한테 좋으라고 혹은 네가 비교적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는 단지 타인을 충고하고 설득하는 혹은 애원하는 좋은 이유일 뿐이지 그한테 강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3) 한 사람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그의 행위가 타인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진다. 즉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하여 그가 바로 군주이다. 이 점은 당대의 사상이 벌린(Isaiah Berlin, 1909~1997)의 이른바 소극적 자유의 관점과 유사하다. 즉 법률에 의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확정되는데 개인자유 의 가장 작은 범위 안에서는 침범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적 생활 영역과 공적 권위 사이에 반드시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자유 의 범위 안에서 개인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고 정부를 포함한 타인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하여서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자유주의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인간의 평등성과 각 개인의 합리적 자유를 강조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원시 유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주성을 진정으로 중시하지는 않았다.

5) John Stuart Mill, *On Liberty*(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1956), 13쪽.

6)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in his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밀의 『군기권계론』의 핵심은 개인자유 중요성을 논증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개인은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 밀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개성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개성의 발전은 개인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기계는 하나의 틀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미리 규정된 업무에 의거하여 움직인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나무와 같아서 생물성의 내재된 힘의 방향에 근거하여 다각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발전성을 가지고 있고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불가예측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생명은 특수한 생명해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나 타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면 인류행복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부족하게 된다.

밀은 인간의 차이성을 줄곧 강조하는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생활의 방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재어 맞춤 제작한 것이 아니고서는 창고에 넘치는 물건 중에서 고르라고 하여도 자신한테 어울리는 외투 혹은 신발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자신한테 적합한 신발을 찾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타인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마땅히 부동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공간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가지 부동한 생활방식 중에서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개체성의 발전이 행복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된다면 자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는 그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고 그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⁷⁾

따라서 밀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합리적인 자유공간이 허락되어야 만이 비로소 개성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자신만의 특수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이 강조한 것이 개인의 차이성과 특

7) 밀의 개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Mill의 *On Liberty*에서 Chapter 3을 참조.

수성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인간의 자주성을 중요시하였는데 비교해보면 맹자가 비록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은 그 얼굴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고 하였지만 이 관점은 결코 한 걸음 더 깊이 해석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가사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이다.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吾道一以貫之)”고 하였고 『중용』에서는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고 백세로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는다(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고 하였으며 명유 육상산은 “마음이 같으면 이치도 같다(此心同, 此理同)”고 하였다. 만약 인류의 도덕이상의 “도”가 “一”이라면 이 “도”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주입 및 기억, 암송이다.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 쉽다. 따라서 유가에서 말하는 ‘개성’은 생물성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밀이 말하는 특수성은 아니다. 보다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도덕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지기 때문이다(殊途同歸).

III. 유가윤리와 개인주의

공자의 가장 중요한 윤리사상은 ‘정명’이다. 즉 이른바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인데 매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도덕이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그는 “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써 임금을 섬긴다”⁸⁾고 하였고 맹자도 “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도리를 다 하고 신하가 되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한다”⁹⁾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이 각기 있을 자리에 있고 각기 본분을 다하는 윤리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선왕이 무왕이 주를 토벌하였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질문하였을 때 맹자는 이렇게 답하였다. “인을 해친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친 자를 ‘잔’이라 하며 잔적한 자를 ‘보잘 것 없는 놈’이라고 부릅니다. 저

8) 『논어』 팔일편,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9) 『맹자』 이루편, “欲為君, 盡君道; 欲為臣, 盡臣道.”

는 보잘 것 없는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군주를 시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¹⁰⁾ 주가 좋은 군주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왕이 죽인 것은 ‘한 놈’이지 ‘군주’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관과 자유주의의 평등, 자유이념은 어울리지 않는다. 유가의 윤리체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등급이 존재하고 평등한 것이 아니다. ‘오륜’¹¹⁾ 중에서 ‘친구’ 사이만이 평등한 관계이고 남은 네 가지는 모두 상하의 관계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평등도 부모와 자녀가 모든 면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지 결코 부모의 재산이 아님을 강조한다.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측면 즉 ‘공민’ 혹은 미래의 ‘공민’—이른바 공민이란 매 한 사람 모두 존엄적인 존재자임을 가리킨다—으로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결정에서 마땅히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평등하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 다른 종교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가 찬성하지 않는 직업 혹은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유가의 효도 하에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다. 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자신과만 관련된 부분에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가르침, 권고 혹은 논리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순종’을 요구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전통 유가의 효도에서 ‘순종’의 정신은 불평등을 충분히 드러낸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공자가 ‘효’에 대하여 논의한 부분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긴 행실을 살핀다.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으면 효라고 할 수 있다.(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학이편)

10) 『맹자』 양혜왕편, “賊人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11) 오륜의 논의는 『맹자』 등문공편의 “使契為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에서 따온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부드럽게 간하고 (부모님이) 뜻을 따라주지 않음을 알게 되어도 더욱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이인편)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계시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父母在不遠遊, 遊必有方.)”(이인편)

맹자가 군신관계를 논할 때 평등관에 비교적 가까운 것 같다.

맹자가 제선왕에게 고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자기의 손과 발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자기의 심장과 배와 같이 생각하고, 임금이 신하를 개나 말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낫선 사람같이 생각하며, 임금이 신하를 흠이나 풀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讎.”)(이루편)

제선왕이 경(卿)에 대하여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어떤 경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왕이 말하였다. “경에 같지 않음이 있는가?” 맹자가 말하였다. “같지 않습니다. 귀척의 경이 있고 이성(異姓)의 경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귀척의 경에 대하여 묻고 싶다.” 맹자가 말하였다. “군주에게 큰 과오가 있으면 간하고 그것을 반복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를 바꿔버립니다.” 왕이 발끈하면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맹자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이 제게 물으시는 것인데 제가 어찌 감히 바른 말로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은 얼굴빛이 가라앉은 후 이성의 경에 대하여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군주에게 과오가 있으면 간하고 그것을 반복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齊宣王問卿. 孟子曰: “王, 何卿之問也?”王曰: “卿不同乎?”曰: “不同, 有貴戚之卿, 有異姓之卿.”王曰: “請問貴戚之卿.”曰: “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易位.”王勃然變乎色. 曰: “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王色定, 然後請問異姓之卿. 曰: “君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去.”)(만장편)

하지만 말 속의 의미를 자세하게 헤아려보면 진정한 평등은 아닌 것 같다. 왜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은 군주에게 누차 간하여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서로 다른 해결방법을 취하여야 하는가? 귀척의 경만이 군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과 동공이곡의 묘함이 있는 것 같다. 플라톤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재

질이 다르고 결코 모든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혈연적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맹자의 주장은 ‘혈연’이 ‘혁명’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결정한 것 같다. 이 밖에 공자의 ‘군군’이 강조한 것은 ‘군주’는 마땅히 ‘군주’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 혹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군주의 자리에 대신 오를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의 “백성들은 (인도하여)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내용이나 도리를)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태백편)는 관점의 배후에 숨겨진 논리는 플라톤의 “선천적인 재질이 누가 군주를 맡기에 적합한지 결정한다”는 관점과 더 근접한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인 역할의 차이는 선천적인 재질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당대의 자유자주의자들이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논증과 그 취지가 크게 다르다.¹²⁾ 따라서 ‘정명’의 윤리관과 선천적인 재질에 근거하여 각자 알맞은 위치에 자리 잡는다는 주장은 하나의 총체로서의 ‘사회’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개인이 사회 속에서의 역할은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The Republic*)에서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를 금, 은, 동과 철의 영혼재질에 대응시키고 어떠한 역할도 자신의 재질을 뛰어넘으면 모두 이상적인 사회가 타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자가 철학가한테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철학가를 강박하여 비교적 지위가 낮은 생활을 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플라톤은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생활이 통치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믿었다) 철학가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플라톤에게 질문하였을 때 플라톤은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개체 혹은 계급의 행복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행복이기 때문이다.¹³⁾ 이는 가장 전형적인 집단주의 사유모식이다. 원시 유가의 윤리관도 이와 부절을

12) 영국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당대 개인주의의 대표인물이다. 홉스는 자신의 명저 *Leviathan*에서 자연적인 상태(state of nature)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불평등은 결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률도 도덕도 없는 상태에서 힘이 가장 작은 사람도 힘이 가장 큰 사람을 죽여 버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인간의 평등성을 가정한다.

13) Plato, *The Republic* 519d-520b.

맞춘 것처럼 꼭 맞는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집단적인 요구는 개성의 발전보다 중요하고 인간은 주로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원시 유가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IV. 체제화 된 유가와 개인주의

중국에서 어떠한 사상도 유가처럼 정치와 사회제도 건립의 청사진이 되었던 적은 없었다. 한 대 이후로부터 유가는 정치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과거제도가 확립되면서 유가사상에 대한 연구는 일반 백성들이 공명이록(功名利祿)을 추구하는 출세의 수단으로 되었으며 유가는 개인의 앞날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원래부터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의 계급적 윤리를 강조하였던 사상은 일단 제도화되면서 계급의식이 필연적으로 강화되었고 ‘정명’사상은 실천을 거치면서 ‘명’의 중요성이 ‘실’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君, 父, 夫)의 권위는 확대되었고 존비, 상하의 불평등관계가 심화되었다.

부자관계를 예로 들면, 그다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맹자의 “보잘 것 없는 주를 죽였을 뿐”이라는 이론대로라면 그는 이미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명’으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래도 반드시 순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이다. 때문에 “천하의 옳지 않음이 없는 부모(天下無不是의父母)”라는 이러한 민간에 널리 전하여진 불합리한 윤리관은 ‘정명’의 실천과정 중에서 ‘정’을 소홀히 하고 ‘명’에만 주목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세를 점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한테 ‘효순’의 중요성을 비교적 쉽게 강조하고 “만약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효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 경향을 피면하기 어려운 듯하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관계가 명분 위에 확립될 때 ‘정명’의 ‘정’이야말로 관건임을 강조하더라도 실천에서는 오히려 ‘명’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은 매우 쉽게 구별되지만(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자식이고 이러한 역할구별은 매우 분명하다) ‘정’은 심오한 큰 뜻을 알아야 하고 비교적 깊은 교화를 필요로 할뿐더러 심지어 배우는 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공자의 윤리사상은 실천에서 ‘명’이 ‘실’보다 훨씬 더 강조됨으로써 중국의 전통사회에서는 명실이 부합하지 않는 행위표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명’은 군신관계에서 형식적인 상황이 더욱 명확해진다. 실제로 군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력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끊임없이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하에 대한 군주는 자녀에 대한 부모보다 더욱 강제력을 가지고 더욱 강한 신하의 종속성을 요구하게 되며 신하는 반드시 고도의 충성을 표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개인의 목숨(身家性命)이나 공명이록(功名利祿)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화가 자손에게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존군신비(君尊臣卑)’의 개념이 바로 위잉스[余英時] 선생이 말하는 유가의 법가화이다. 위잉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가를 파멸하고 유술만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그가 교묘하게 유가의 외투로 법가의 ‘존군비신’의 정치내핵을 감쌌기 때문이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양유음법(陽儒陰法)’이 초래한 ‘존군비신’의 구조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로부터 법가가 제패하였고 통치자는 전례 없는 권위를 누리게 되었는데 욕심이 많았던 한무제는 자연스럽게 답습을 즐겼다. 따라서 대권을 독점하고 있는 군주가 유가사상을 채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자체에 군주에 의하여 점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천 여년의 군주전제의 중국에서 유가사상이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후의 학자들이 통치자의 비위에 알맞게 걸모습을 잘 꾸몄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⁵⁾

14) 余英時, 『역사와 사상』(대북: 연경출판사, 1977), 43쪽. “漢武帝之所以接受董仲舒的建議, ‘罷黜百家, 獨尊儒術’...是因為他巧妙地用儒家的外衣包住了法家 ‘尊君卑臣’的政治內核.”

15) 이러한 논의는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熊十力的 『원유』(대북: 사지교육출판사, 1974)의 8쪽; 余英時的 『역사와 사상』의 31~46쪽; 費孝通的 *The*

이로부터 유가의 윤리가 이론과 실천 상에서 차이가 생기기 쉬움을 볼 수 있다. ‘군군’의 규범적 개념은 매우 쉽게 ‘군권지상(君權至上)’으로 전화 되기 때문에 봉건시대의 군주는 ‘천자’를 자처하였고 천하를 얻은 자는 ‘하늘이 영명함을 조종할(天縱英明)’ 뿐만 아니라 ‘천명이 귀의하는 바(天命所歸)’이다. 때문에 유가사상의 진정한 실천의 결과는 “신하가 죽기를 군주가 요구하면 신하는 감히 죽지 않을 수 없다(君要臣死, 臣不敢不死).” ‘존군’은 표준적인 군신윤리가 되었고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성은 무조건적이다.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군주가 바로 국가이다. 이러한 ‘집즉천하(朕即天下)’의 사상은 집단주의의 논리가 충분히 전개된 것이다.

유가의 이러한 범가화한 예교는 비록 청말·민초에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였고 ‘5·4운동’ 시기에 처음으로 ‘공가점을 타도하자(打倒孔家店)’는 구호를 외쳤지만 서양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1960년대 대륙의 문화대혁명은 유가에 대해서는 특히 한 차례의 전례 없는 재난이었다. 오히려 양안의 정치적인 대립 속에서 유가사상은 대만에서 전면적으로 회생하였고 유가의 교화는 생활 속의 각 영역에까지 깊이 침투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대만사회의 각 급 학교의 품격교육에서는 거의 유가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고등학교에는 『중국문화기본교재(中國文化基本教材)』가 있었으며 『사서』는 소재의 대상이었다. 이 밖에도 국문과의 교재에도 많은 유가사상의 문장들이 사용되었는데 가치관은 ‘내성외왕’, ‘천인합일’이 강조되었다. 이는 개인수양의 최고목표로서 다시 말하면 개체는 반드시 민포물여(民胞物與)의 포부, 집단적인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는 개체개념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범중엄(范仲淹)의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긴 후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및 장재의 “세상을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운다. 지니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후세를 위하여 태평한 세상을 여노라(為天地立心, 為生命立命, 為往聖繼絕學, 為萬世開太

China's Gentr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의 35쪽을 참조.

平)” 등 유가사상은 청년 계몽시기에 늘 제기되는 이상이었다.

사실상 유가의 가치관은 일원적인 것이다. ‘도’가 — 이지 多 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좋고 나쁨에는 하나의 표준적인 답안이 있는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일원적인 가치관은 집단주의를 쉽게 형성하여 사회통합(social unity), 사회관계를 강조하고 사람들 간의 교제에서는 ‘조화를 귀하게 여김(和爲貴)’을 중시하였다. 교육방식은 위에서 아래에 이르는 가족장제(paternalism), 주입식이었고 대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만약 한 아이가 부모한테 철학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면 부모는 반드시 각종 위협과 유혹의 방식으로 자녀가 생각을 바꾸게끔 강요하고 맨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야!”라는 한 마디를 보탠다. 왜냐 하면 부모는 전통적인 유가의 교화 하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정설을 가지고 있다. 만약 아이가 철학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사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생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장구한 행복을 위하여 고려한 것임을 자녀가 나중에 크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모식은 바로 개인의 특수성, 차이성을 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관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표준적인 답안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육은 자유로운 사고, 비판, 질의와 토론을 격려하지 않음으로써 옛날 어른들은 늘 아이들한테 “애가 귀는 있지만 입이 없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 아래에서 개성이 심각한 압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인 실천에서 ‘엇비슷한 남녀 두 집안이 만나고’(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일이다), ‘남존여비’(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며 개인은 단지 사회분공의 바둑돌일 뿐이다)는 여전히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였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는 가정, 가족, 사회, 국가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집단의 이익은 개인보다 위에 있었으며 ‘의사집안’은 바로 부모 혹은 가족의 염원을 만족시켜주는 결과물이었다. 만약 한 ‘의사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장차 이발사가 되고자 한다면 밀의 개인주의 정신 하에서 그의 선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의 가족과 사회

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점 하에서 그의 선택은 머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스스로 타락한 것이다.

V. 계엄을 해제한 이후의 대만—개인의식의 대두

대만의 헌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정신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1988년에 정부가 계엄령을 제거하고 헌정체제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한 후 개인주의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가부장적 관념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자유주의의 헌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기본 자유권은 계엄이 해제된 후 개인이 자각을 의식하는 촉매제로 변화했는데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권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항쟁에 드러난 것이다. 1990년 3월에 발생한 한 차례 대규모의 학생운동은 ‘야백합운동(野百合運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운동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을 때에는 6000명에 달하는 대만 각지에서 온 대학생들이 중정기념관(오늘의 ‘자유광장’이다)에 모여 정좌하면서 ‘국민대회를 해산하고’, ‘국시회의를 소집하고’, ‘정치경제개혁시간표를 작성하라’는 등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이래 규모가 가장 큰 학생운동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민주정치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 운동으로 당시 재임 중이었던 리덩휘[李登輝] 총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시회의를 소집하였고 이른바 ‘만년국회’를 종결지었으며 대만의 정치로 하여금 민주주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태양화학운(太陽花學運)’은 개인의식이 한 걸음 더 각성하였던 운동이다. 이 운동은 학생들이 입법원의 『해협양안복무무역협약(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경솔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3월 18일에 입법원 밖에서 ‘민주를 수호하는 밤’ 야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의 400여명 학생들은 경찰들이 무방비한 틈을 타서 입법원 안으로 쳐들어가 정좌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어서 밤 21시에 경찰들의 봉쇄선을 뚫고 입법원 의장을 점령하였다. 26시간 내에 학생을 위주로 하여 1만

여명의 백성들이 입법원 밖에 모여서 지지를 표현하였다. 이 운동은 당시의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의 승낙 하에 폐막하였는데 왕원장은 『양안협의 감독조례』의 초안이 입법을 완성하기 전에 양안의 복무협외와 관련된 정당과 단체의 협상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였다. 사실상 ‘태양화학운’은 거의 간접적으로 대만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민당은 재차 정권을 잃어버렸으며 ‘시대역량(時代力量)’이라는 정당의 쫓기도 이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실상 계엄이 해제된 후 대만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항쟁운동이 발생하였다. 정치, 환경보호, 핵발전과 관련된 의제로부터 노동자, 농민, 여성권익의 쟁취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헤아릴 수 없다. 모두 개인의식이 대두하였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민주정신의 표현으로 인민은 자신의 합당한 권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을 뿐만 아니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헌법의 개인주의정신은 계엄이 해제된 후 대만에서 충분히 발휘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인민의 사유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시정의 태도에도 충격을 주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윤리관념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이상 ‘순’이 아니라 평등으로 나아가는 ‘講理(이치를 따짐)’이고 따라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이상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자각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교양에 있어서 적어도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부모가 계시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점차적으로 우세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이미 전통은 사라졌고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장기간 해외에서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부모만 대만에 남아있다.

여권운동은 ‘남녀평등’을 구호에만 그치게 하지 않아서, 사회는 보편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되었고, 남성들은 우연이라도 ‘마초주의’적 언행을 했을 경우에 즉각 모든 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부부’관계는 더 이상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맞벌이가정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동등한 자격으로 상

하 혹은 준비의 구별이 없는데 이는 개인주의 평등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밖에 민주정치에서 군신관계도 완전히 변화하였는데 통치계급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고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비판은 없는 날이 없다. ‘군존신비’의 개념도 벌써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다.

대만사회에 대한 개인주의의 충격은 매우 뚜렷하다. 유가의 교화는 더 이상 절대적인 우세가 아니었고 자아의식의 고조로 말미암아 윤리도덕관도 전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예하면 혼인은 더 이상 두 가족의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이고 동성애도 더 이상 변태적이고 요사스럽거나 부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자주(性自主)에 속하는 것이며 ‘溫良恭儉讓’이 반드시 미덕은 아니고 자신의 권익은 반드시 스스로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합하여 말하면 자유를 자주적으로 운용한 결과, 생각의 다름과 가치관의 차이가 조성된 다원적 사회에서 각종 사상이 만발하게 되었고, 타인의 합리적 자유 공간을 침범하지만 앓는다면 상호대립하거나 심지어 상호충돌하는 도덕적 주장들이 각각 그 옹호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유가 윤리는 다만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선택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고, 다시는 보편적 표준이 되지 못하였다.

VI. 건강하지 않은 개인주의

밀의 논의로부터 개인주의는 결코 자사자리(自私自利)와 같지 않고 개성을 강조하는 것은 행복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 한 사람의 적당한 자유를 허락하여야 만이 개성을 배양할 수 있고 특수한 자아를 찾음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아름다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는 반드시 최저한도의 공평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롭고 질서 있는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확보해야만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매 개인은 모두 일정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문제는 다음에 있다. 곧, 본능적인 완강한 이기심으로 인해 개인주의는 자사자리로 빠져들기 극히 쉽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전통적 유가사회의 계층 구조가 ‘각자 문 앞의 눈만 치우고 타인의 지붕 위의 서리를 관계하지 않는’ 구조로 매우 쉽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실상 대만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개인의식의 각성은 호랑이가 울타리를 벗어나듯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한계를 모르는데 개인의식의 지나친 고조는 ‘건강하지 않은 개인주의’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주의의 가치는 매력을 잃었고 비교적 적은 사람만이 ‘국가’, ‘사회’를 개인의 이상으로 삼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과 미래만을 고려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개인주의’는 ‘자신’이 존엄적인 존재이고 중시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타자’도 존엄적인 존재자임을 중시할 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개인주의는 ‘자유’를 ‘합법적인 이기심’으로 변하게 하여 자신한테 이롭지 않은 공공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쟁하고 정치입장이 다르면 ‘대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을 모욕한다. 배타적이고 독단적인데 마치 자신이 바로 진리의 대변인 듯 싶다. 하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한 개인주의는 충분한 공공정신(public-spiritedness)을 배양할 것이 필요한데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공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면 반드시 다양한 가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주의는 반드시 이견을 허용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충돌을 해결하는 인품과 덕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국민예의(civility)를 갖추고 타인을 경시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양호하고 자유로운 민주적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민도덕에 속하나, 대만 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 사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권리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생겨날 수는 없다. 곧, 어떤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권리를 옹호하려면 동시에 그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 대만 사회에서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각종 병폐가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개인 권리’를 ‘공민 의무’보다 훨씬 중시하는 것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VII. 결론

『연합보』는 2016년 3월 14일에 양안통일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998년에는 영원히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18%를 차지하였고 2016년에는 46%를 차지하였다. 1998년에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이 3할을 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1할 좌우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륙의 대다수 인민들은 통일을 기대한다. 무엇 때문일까? 대만인민의 개인주의사유가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좋은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에 주목하였고 ‘통일’이라는 집단주의 가치개념은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고서는 대만의 새로운 세대에게는 감흥이 없다. ‘나라가 없이 어디에 집이 있겠는가’ ‘등지가 뒤집어지면 알은 온전치 못하다’ 등의 ‘국가 지상’적 집단주의적 이상은 국가의 안전이 우려될 때라야만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대만사회에서 ‘국가’는 도구적인 가치(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만 가지고 있고 내재적인 가치(intrinsic value)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만 인민에게 과도하게 팽창된 개인주의도 좋은 일은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 Sandel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들었다. 1993년에 스위스에서 중부 산간지대의 한 작은 마을을 선정하여 핵폐기물 저장소로 쓰는 것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51%의 주민이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의 공민에 대한 의무는 위협성에 대한 우려보다 강하였다. 후에 경제학자가 하나의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였다. 즉 만약 마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매년 주민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다면 찬성할 것인가? 투표 결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갔다. 51%에서 25%로 내려갔는데 무엇 때문일까?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공공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공민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지만 보상금은 뇌물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¹⁶⁾

16) Michael J. Sandel, *What Money Can't Buy* (London: Penguin Books, 2012), 114~117쪽.

자유·자주·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합리적 집단-개인 윤리관계는 ‘공민’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개인주의를 확립하는 것인데 자신을 중시할뿐더러 타인도 존중하고 개체(이익)로서의 자신과 공민(책임)으로서의 자신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당대의 시장경제로 개인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뒤바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전통적인 집단주의로 돌아가 균기조화의 답안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따라서 개인주의의 충격 하에서 유가의 윤리관은 대만에서 일부 개인의 수신양성의 근거로 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공동한 신앙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자유를 얻으면서 여전히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공민’의 윤리교육에서만 답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린 화 왕

대만대학 철학과

고 성 애 역

서울대 철학박사

참고문헌

《論語》

《孟子》

余英時, 1977. 《歷史與思想》, 台北: 聯經出版社.

余英時, 1996. 《現代儒學論》, River Edge, USA: 八方文化企業公司.

費孝通, 1966. *The China's Gen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費孝通, 1991. 《鄉土中國》, 香港: 三聯書店.

熊十力, 1974. 《原儒》, 台北: 史地教育出版社.

Berlin, Isaiah.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his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bbes, Thomas. 1958. *Leviathan-Parts One and Two*.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Johnston, David. 1994. *The Idea of a Liber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ll, John Stuart. 1956. *On Liberty*.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Plato. 1955. *The Republic*. Harmondsworty,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Sandel, Michael J. 2012. *What Money Can't Buy*. London: Penguin Books.

Waldron, Jeremy. 1987.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Liberal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37 (1987): 127-150.

ABSTRACT

The Ethical Impact on Confucian Society
by Individualism

- With Taiwan Society as an Example -

Lin, Huowang

Before the lifting of the martial law in 1988, Confucianism was the dominant ideology in Taiwan society. Ever sinc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has fully enforced, Confucianism has been challenged and its overall influences have gradually reduced. The Constitution now practiced in Taiwan is built upon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core of liberalism is individualism. By contrast, Confucianism is collectivism. Therefore the impact of individualism on Confucian ethics is evident and comprehensive. This article, taking Taiwan as a perfect example, tries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the morality of a liberal society where the individualism prevails.

Subject Class: Ethics, Confucianism

Keywords: Taiwan Society, Individualism, Collectivism, Confucian Society, the Ethical Impact